

성 창 경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주변환경과 삶속에 관련된 연구

-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

2005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동양학과

김 동 희

주변환경과 삶속에 관련된 연구

-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

성 창 경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05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동양학과

김 동 희

인 준 서

김동희의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印)

심사위원 _____ (印)

심사위원 _____ (印)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개요

본 논문은 보편적 주거지인 '아파트'를 주제로 한 개인전을 대상으로 제작 배경과 이론적 근거, 작품 설명을 통해 현대 회화의 모습을 찾고자 자신의 작품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 본다.

시간은 항상 변화를 만드는데 이런 변화 속에서 사람들의 사고와 필요요소는 항상 변화한다. 본래 회화는 평면 공간 위에 형태, 색채 등의 조형요소로서 느낌이나 생각을 표현하는 조형예술, 즉 그림을 말하는데, 현대에 와서는 그림만을 말하지 않는다. 미술의 형태를 변화시키기 보다는 미술에 대한 개념 자체에 변화를 주어 작가의 생각을 표현함에 어떠한 제약도 주지 않는다. 즉, 시대적 배경, 제작과정, 의도 등 기존에 억압받던 굴레를 벗고 작가의 생각을 전달하거나, 사람들로 하여금 무언가를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촉매제 역할을 하면서 그 형식은 새로운 것을 찾아가는 것이다. 따라서 현대미술은 그것이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를 준다면 그것이 자체가 의미 있는 것이다. 이는 작품을 보는 방법과 제작방법을 무한히 자유롭게 해주는 계기로 작가들은 이 새로운 개념을 찾아가기 위해 노력한다.

이런 맥락에서, 준비해 있는 아파트들을 조형요소로 사용함은 주제에 대한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줌으로서 작품표현 형식에 큰 비중을 두던 작품에서 벗어나 표현 자체에 의미를 두고, 주위와 자신과의 사이에서 어느 정도의 의미 전달이 되는지와, 그 과정에서 얻은 개개인의 새로운 느낌에 중점을 두어, 아파트의 사실적인 표현방법에 중점을 두기 보다는 아파트 자체의 느낌 표현에 중심을 두어 표현하였다. 이런 기존에 없었던 의미전달 과정을 단순화해 작품에 한걸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고,

이는 주위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표현의 자유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아파
트란 소재를 통해 찾았다.

이런 주변 환경의 인식과정에서 작품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찾아 자신의 작
품과 연결시켜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본 논문을 통해 모색해 보고자 한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 론	1
II. 본 론	3
1. 주변환경의 인식과 소재(아파트)선택	3
2. 작품의 표현	12
3. 포스트모더니즘이란	
4. 대중과 작품과의 관계	
III. 작품(아파트)의 분석	15
IV. 결 론	29

참고문헌

ABSTRACT

작 품 목 차

- 【작품1】 앞집뒷집 II, 102×146cm, 장지에 채색, 목탄, 2003 15
- 【작품2】 Take the air II, 90×116cm, 장지에 채색, 2003 17
- 【작품3】 Take the air I, 160×130cm, 장지에 채색, 목탄, 2003 ... 19
- 【작품4】 Take a turn, 140×180cm, 장지에 채색, 아크릴, 2003 21
- 【작품5】 Take an outing, 130×160cm, 장지에 채색, 목탄, 2003 ... 23
- 【작품6】 Stroll, 600×210, 장지에 채색, 목탄, 2003 25
- 【작품7】 Be the head, 160×110cm, 장지에 채색, 목탄, 2003 27

I . 서 론

인간은 사고를 통해 인식하고, 다양하게 발전하며 이러한 다양한 사고는 미술에서도 새로운 관점을 만들어 가고 있다. 감상의 대상이 대중과 작가 가운데서 서로 간의 소통 매개체로 자리잡아가고 있어, 대중들은 예술에 한걸음 가까이 갈 수 있고,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예술로 변화하고 있다. 이런 현상들은 기존의 작가위주의 예술에서 대중위주의 예술로 바뀌어 대중이 작품의 한 부분을 차지해 가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현대미술을 다양한 방향을 제시하고 이런 방향은 정의 할 수 없는 각각의 개성을 가지고, 작가의 개성과 대중과의 소통을 통해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로인해 작가들을 이러한 제작과정을 개척하기 위해 많은 실험과 대중과의 접촉을 시도한다.

현대미술은 한 마디로 정의 할 수 없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보는 시각에 따라 무한히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만큼 너무나 광범위한 범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중과의 소통과정에서 각기 다른 시각들이 생겨난다. 시대적으로 보았을 때 과거의 어느 때 보다 급속한 발전과 변영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이 시대에 속한 작가들은 그 흐름을 잘 파악하여 자신의 자리를 찾아가는 훈련을 해야 한다. 이 논문도 그 과정 중에 하나이며 작품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것을 찾아가는 한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일상에서 주변의 관찰을 통해 아파트의 존재를 인식하고, 아파트를 단순한 집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한 부분으로 보며, 개인적이고 가까이 있는 주위의 발견을 통해 스쳐 지나갈 수 있는 것들을 발견하여 표현의 근거와 소재 선택의 계기를 찾고 작품과 대중과의 사이의 거리에서의 느낌에 대한 차이가 포스트모더니즘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본다.

그리고 자신의 작품(아파트)에서 내용적인 면과 방법적인 면들이 실제로 표

현 과정에서 작가와 대중이 서로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그들이 사회의 시선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받았는지 사회가 표현하는데 얼마나 많은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보고 둘 사이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찾아보도록 한다.

Ⅱ. 본 론

1. 주변환경의 인식과 소재(아파트)선택

소재는 그림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며 작품을 전달하는 중요한 매개체가 되기 때문에 현대에 와서 작가의 의도와 사람들의 의사소통에 중간역할을 하고 본래에 가지고 있던 이미지를 종이에 옮겨 놓음으로서 의미전달을 보다 쉽게 하고 일반적인 소재와 의미를 접합시킴으로서 변환점을 제시해 주는데 이는 시도 자체가 큰 의미가 되어 미술에서의 소재는 의미 전달의 수단이자 존재 자체로 많은 의미를 부여하게 한다. 표현방법도 의미전달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어 작품을 대할 때 소재에 의존하여 작가의 의도와 보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것을 제시해 주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현대에는 작품의 표현 방법이 작가의 개인적인 사고를 통해 형식에 구애 받지 않고 새로운 것을 표현해 낸다. 소재를 통한 의미전달의 영역에서 큰 확대를 가져오고, 소재를 다양한 형태로 활용하여 작가의 표현영역을 무한히 확장시켰다.

자신의 작품에서의 소재 선택은 일상에 속해있는 주변을 인식하면서 시작된다. 주변에는 우리와 공존해서 살아가고 있는 여러 가지의 것들이 있다. 늘 곁에 있어서 모르고 지나쳐 가는 그것들과 어울려 사회를 이루어 나간다. 현대사회는 매우 복잡하고 급변하고 있으며 조직의 체계화, 사고의 구체화, 거대화, 대중화, 정보화 등 한마디로 단정 지을 수 없는 것들과 어우러져 '나'라는 존재를 만들고, 나를 기점으로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여러 무리를 만들어가며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복잡한 것들은 우리에게 밀접한 영향을 미치지만 너무도 복잡한 나머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서로서로 엉켜 다른 것

에 의해 본 모습이 가려진 채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우리의 주변은 '주'가 아닌 '부수적인 것'으로 치부되고 만다.

산업의 공업화로 사람들은 시대 발전의 흐름에 따라 풍요롭고 편리한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러나 기술 혁신은 환경에 대한 무모한 도전의 결과로 나타났고 환경과 인간과의 관계를 변화시켰다. 자연이 파괴되어 생활환경이 악화되고 기계에 인간이 종속되는 문제가 생겼으며, 과학기술의 발달과 공업화는 분업화와 전문화를 낳아 그에 따라 조직의 체계화가 필요하였고 도시와, 행정기관, 기업이 거대화됨에 따라 조직도 거대화되고 현대인들은 이러한 조직을 떠나서는 살 수 없게 되었다. 그 결과 현대인은 조직에 길들여져 그 속에서 점점 무력해져만 간다.

현대사회의 두드러진 특성으로 대중사회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도 사회구성원들 간의 인격적, 정서적 유대가 단절되어 하나하나의 개인들이 고립된 사회를 말한다. 미국의 사회학자 데이비드 리즈먼(David Riesman, 1909~2002)은 이러한 대중사회의 모습을 '고독한 군중(The Lonely Crowd)' 이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하였다. 즉, 현대사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살기는 하지만 예전과 같이 정서적으로 맺어진 유대감을 갖지 못하고 모든 사람들이 고립되어 살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무력감, 무의미성, 무규범성, 고독감¹⁾ 으로 인해 현대사회에서 정

1) 무력감은 자기 자신의 행동이 자신이 바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수 없다고 느끼는 기대 또는 확률을 의미한다. 무의미성은 개인이 무엇을 믿을까 알 수 없는 것, 즉 의사결정의 명료성에 대한 개인의 최소기준이 만족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무규범성은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사회적으로 시인될 수 없는 행동이 필요하다는 높은 기대를 의미하며, 뒤르켐 아노미(anomie)에서 유래된 것이다. 고독감은 특정 사회에 전형적으로 높은 가치가 부여되어 있는 목표나 신념에 대하여 개인이 낮은 가치 이외의 보상에 종속하는 정도를 말한다.

:프리즈 파펜하임, 「현대인과 소외」, 진덕규 역 (서울 : 학문과 사상사, 1983), pp.10-13.

신적의미를 상실한 인간의 내면은 공허하며 현실에서 내 위치를 잃어버린다. 삶의 본성 속에 뿌리를 두고 이끌어가는 정신적 의미와 가치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자기존재의 의미나 가치에 대한 탐색과 추구가 시도되어야 하며, 현재 상황을 미래의 희망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인간에게 미치는 외부적 환경을 통찰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대인의 주변에 대한 무관심을 다시 환기시켜야 할 필요성은 자신의 감각을 잃어버린 인간들이 자연과의 관련성에 대한 느낌도 상실하는데 있다. 그들은 나무나 산과 같은 무생물과 유기물에 대해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등한시할 뿐 아니라 동물에 대한 공감마저 잃어버린 상태이다.

정서적 감각은 삶에서 체험된 이미지로부터 가시화되는데 이는 외적인 세계에서 정신적 세계로 나타나게 되므로 예술의 근본은 감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일상에서의 경험은 그 대상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봄으로서 진정한 예술의 '미(美)'를 불러일으키는데 일상의 자연 풍경 역시 새로운 감성으로 인식한다면 예술의 소재로서 충분히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매일 되풀이 되는 삶, 반복적이고 진부하며 중요하지도 않은 사소한 것은 일상의 바탕 없이는 어떠한 사건, 행위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삶에서 차지하는 중요한 것, 이것이 일반적인 일상²⁾의 의미가 된다. 일상은 되풀이되기 때문에 회귀하려는 성질이 있으며 진부한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이변을 문제 삼지 않기 때문에 언제나 사소한 영역으로 간주되기 쉽다.

독일의 철학자 헤겔(Gerorg Wilhelm Frierich, 1770~1831)은 일상을 「'지금

2) 한스 페터 투른 (H. P. Thurn)에 의하면, 어원학적으로 볼대 '일상'(Alltag)이란 개념은 그리스어 '카테메탄'(catemetan)과 라틴어 '코티디아누스'(cotidianus)로부터 유래되는데, 그 뜻은 매일 '반복적인 것'을 의미한다. 동시에 이런 반복의 결과 '관계화된 것' 또는 '습관'을 말한다. 이것은 한문의 '日常(일상)'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日常'이란 늘 되풀이되고 반복되는 하루하루란 뜻이다.

: 최종욱, 「일상에서의 철학」 (서울 : 지와 사랑, 2000), p.171.

까지 있어 온 것이 내일도 일어나는' 자연의 상태³⁾ 라고 하였다. 그것은 인간 존재가 먼저 생존해야 한다는 명제 아래 비롯된다. 다시 말해 일상은 생존과 존속의 메커니즘이다. 일상을 통해서만이 '자연'이 사회적인 것으로 탈바꿈 될 수 있는 것이며 인간이 다듬은 각종 인위적이고 문화적인 것이 자연적인 것으로 전위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일상은 모든 꿈과 이상, 예술이 피어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바탕이며 가장 분명한 현실인 것이다.

일상에서의 경험과 주변을 구성하고 있는 것들은 예술이라는 영역을 통해 새롭게 재현되고 창조됨으로서 예술가는 하나의 경험에 감정을 붙여 넣어 사람들이 흥미를 느끼도록 한다. 작가는 어떤 대상을 그릴 때 대상들과의 감정이입을 통해 자연 속에 흐르는 생명을 느낄 수 있는 것이다. 작품을 창조하는 목적은 사물의 외적인 현상을 표현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내적인 의미를 표현하는데 있다.

일상의 부분인 주변은 같은 반복으로 인해 우리에게 큰 변화를 주지 못한다. 주변은 일상 속에 우리를 형성해 나가고 있는 기본 틀이 되어지고 있고, 이것은 일상의 기본적인 부분을 형성하고 있다. 사람들은 복잡한 사회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일상에서의 탈출을 시도하지만 일상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사람들은 금방 불안을 느끼고 일상이 사람들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 속해있는 복잡한 사회가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요소로 작용을 한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필요한 요소로 새로운 것들과 끊임없이 연관되어 진다. 이러한 것들이 쌓이고 쌓여 복잡한 사회를 형성하고 이 중에서 일석은 개개인과 밀접하지는 않지만 모든 사람들과는 뗄 수 없는 관계를 지속하고 있으므로, 우리는 복잡한 사회를 인정하고 거기에 적응해 가며 살아야 한다. 여기에 적응을 하지 못하면 사회는 자기의 경계선 안에 넣어주지 않는다.

3) 박재환 · 일상성일상생활연구회, 「일상생활의 사회학」 (서울 : 한울, 1994), p.26.

사람은 사회라는 집단에 속해 있다. 아리스토텔레스⁴⁾는 우선 가정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고 그 후, 또 사회라는 것이 만들어져 그 사회 안에서 살아가는 동물이 인간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므로 삶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사회라는 공동체가 필요하고 그 공동체 안에 속하기 위해서는 사회가 제시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에 적응하고 순응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이러한 사회와 '나'를 형성해 주는 최소한의 단위는 너무나 흔해서 잊고 있던 주변들과 같이 일상을 형성하며, 사람이 사회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은 사회 속에서 사유를 통해 인간이라는 모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예술에서도 이러한 사유는 상상이라는 단어로 나타나는데 영국의 철학자 콜링우드 (Robin George Collingwood, 1889~1943)는 “예술작품은 상상의 산물이다”라고 하여 인간의 주도면밀한 정신작용을 강조하였다. 폴 세잔(Paul Cezanne, 1839~1906)은 「“예술이란 개인의 통각(apperception)으로서, 이것을 감각으로 구현시켜 그것을 지성의 힘을 빌어 작품 속으로 구성시켜 놓는다”」⁵⁾ 라고 하였다. 이것은 인간이 인식이라는 정신작용을 통하여 하나의 예술작품을 형상화하는 데는 어떤 대상에 대한 최초의 지각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생활과 사상은 별도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며 양자간의 교호관계를 떠나서는 어떠한 이론도 이해될 수 없다. 헤센은 이러한 전제 아래 서 있으므로 그의 인식론은 단순한 형식적 구조물 이라기보다는 생동감이 있는 사상체로 받아들여진다.⁶⁾ 주변에서 인식한 것은 주변과 따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서로 상호관계를 통해서 생겨나는 사상이다. 지각의 시작은 최소 단위

4) 스타게이로스 출생. 17세 때 아테네에 진출, 플라톤의 학원(아카데미아)에 들어가, 스승이 죽을 때까지 거기에 머물렀다. 그 후 여러 곳에서 연구와 교수를 거쳐(이 동안에 알렉산드로스대왕도 교육), BC 335년에 다시 아테네로 돌아와, 리케이온에서 직접 학원을 열었다. 지금 남아 있는 저작의 대부분은 이 시대의 강의노트이다.

5) 메를로 폰티, 「현상학과 예술」, 오병남역 (서울 : 서광사, 1983), p.199.

6) J. 헤센, 「인식론」, 이광조 옮김 (서울 : 서광사, 1994), pp.6,7.

의 주변에서 출발한다. 주변은 '둘레의 부근'이란 말이다. 하나를 중심으로 한 둘레의 부근이다.

이를 통해 '나와 주변', '주변과 사회', '사회와 나'와의 관계를 찾아보고, 주변 중 한 가지를 찾아 삶의 생각의 작은 변환점으로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는 복잡한 사회에서 자기의 위치와 나를 중심으로 형성되어가는 것들의 요소를 인식하고 내가 정지 되어 있는 모습을 통해 나와 내 주변의 것들이 어떻게 어우러져 살아가고 있으며 나에게 주변의 것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비추어지고 있는지 찾아보려는 노력으로 나에게 가장 가까운 것부터 관찰해 본다.

작품의 소재는 찾아보면 평소에 지나치던 주위의 것들에서 많은 의미를 찾게 된다. 모든 주변의 것들이 제 각기 의미를 지니고 있고 나를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다. 이러한 요소 중 자신이 집중한 곳은 가장 큰 덩어리를 차지하고 있는 아파트이다. 현 시대의 대부분이 그러하듯 복잡한 사회에서의 편리성을 강조해 생겨난 요소 중 하나이다. 이는 너무도 크고 높아서 그 끝에는 하늘과 닿아 있고 딱딱한 콘크리트로 둘러싸여 충격완화장치인 나무들로 아파트를 둘러싸고 그 덩어리 덩어리를 이어주는 크게 난 길과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주변을 형성하고 있었다. 주변은 중심인 나를 위해 존재하며 이런 주변을 바탕으로 여러 작업을 통해 일상의 스쳐지나가는 것들에 대한 재인식을 하고 시선을 집중시킴으로서 각자의 삶 속에 늘 지루하게 반복되는 것에서 이야기 꺼리를 찾는 것이다.

소재는 본래의 형태를 들어내 주제에 쉽게 접근 할 수 있고, 단순화 등 여러 의도를 통한 본래의 형태를 감춰 노골적이지 않은 신비스러움을 주어 상상의 나래를 펼 수 있게 한다. 아파트라는 작품에서는 쉽게 소재를 알아봄으로서 더욱더 효과적인 이해와 아파트를 단순히 아파트로 받아들여 이를 기점으로 각자의 생각으로 작품을 해석하는 것이다. 살아가면서 미처 발견하지 못

했던 주변을 의식함으로서 존재의 위치와 가치를 알고 한번 인식해 봄으로 인해 복잡했던 사회로만 집중되었던 시선을 지나쳐만 가던 주변으로 옮겨 보는 작업이다. 이런 연결통로를 통해 작은 생각의 변화로 쉽게 접근하기 위해 소재를 쉽게 노출시킴으로 인해 작가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기에 앞서 작품을 보는 순간 자신의 생각에서 출발하여 작가의 생각으로 돌아오는 시선을 의도한 것이다.

2. 작품의 표현

표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작가의 생각이고 이 생각을 바탕으로 소재를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그 다음 과제이다. 앞에서 말한 소재인 아파트는 예전의 풍경과는 다른 요즘 우리 주변을 차지하고 있는 요소 중 대표적인 건축물이다. 아파트를 표현함에 있어서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한 것은 하나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과 흔히 생각하는 정도의 사소한 요소가 아님에 중점을 두었다. 그리고 이를 표현하기 위해 여러 선의 반복으로 아파트를 겹쳐 표현함으로써 본인이 선을 그리는 행위 하나마다 그 중요성을 부여하고, 우리 생활에서 필요한 요소를 종이 위에 덧붙여 가는 것이다.

아파트는 생김새 자체가 비슷하다. 크기, 외형적인 면에서 다른 점이 거의 없다. 여기에서 단순 반복된 형태를 통해 지루함을 나타내고 그 속에서의 작은 차이를 발견해 나가는 과정을 그린 것이다. 작품의 제작과정에서 스케치를 통한 방법을 이용하여 관찰한 결과 생각했던 아파트와는 달리 너무도 복잡하고, 다양한 외관을 가지고 있었으며 나름의 개성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선의 반복적인 행위는 종이 위에 표현 되었는데 선의 반복적인 행위를 견딜 수 있는 장치 위에 목탄을 이용한 스케치부터 시작하였다. 목탄은 동

양화에서 먹 다음으로 친숙한 재료이며 먹처럼 풍부한 검은색의 표현 영역을 가지고 있다. 하얀 장지위에 아파트를 한 채씩 새워 뒤에 있는 아파트에서부터 앞에 있는 아파트까지 겹쳐 그림으로 인해 하나의 단지를 나타낸 것이다. 다음에 먹으로 덮고 아파트를 단순한 형태로 반복하여, 세워져 있는 아파트들을 그대로 종이위에 옮겨 놓음으로서 원근과 거리감 등을 무시한 형태로 단순히 눈앞에 보이는 아파트를 끝없이 이어지는 형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는 아파트를 처음부터 스케치하듯 형태만 그린 것으로 인해 비워지는 많은 공간을 계속적인 형태만으로 종이를 채워 무의미함을 반복하며 의미를 찾아가는 행위이다.

앞에서 단순히 형태의 반복을 통한 스케치라고 하지만 실상 그 안을 보면 작가의 욕구를 반복적으로 나타낸 것이 아니라, 욕구 표출을 위해서 반복적으로 표현 한 것이다.

인간의 욕구를 설명하는 이론을 종합해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그 한가지의 욕구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 및 사회적인 욕구와 편안하고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고 싶어 하는 욕구이고, 다른 한 가지는 인간의 정신적인 면과 관련된 남들로부터 존경받고 싶어 하고 끊임없이 자기의 성장을 추구하고자 하는 자기완성의 욕구이다. 여기서 인간이 인간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인정받고 싶어 하고 자기성장을 추구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카네기(D. Carnegie)가 지적했듯이 이 욕구는 인간이 죽을 때까지 영원히 채워질 수 없는 무한한 욕구이다. 7) 이러한 측면의 욕구를 프로이드는 인간의 위대함을 추구하는 욕구로, 미국의 철학자 존 듀이는 중요한 사람으로 대접받고 싶어 하는 욕구로 표현하였다. 이렇게 끊임없이 갈구하는 인정받고 존경받고자 하는 욕구는 인류역사 발전의 원동력이 되어왔다. 바로 이 인정받고 싶

7) D. Carnegie, How to Win Friends Influence People, Pocket Books, 1981.

어 하는 자아완성의 욕구가 링컨이 어려운 상황에서 싸우며 자신을 갈고 닦아 세계의 역사를 바꾸어 놓을 수 있는 위대한 정치가가 될 수 있도록 한 원천적인 힘이며, 많은 위대한 학자들, 예술가들, 그리고 각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목표를 향해 매진 할 수 있게 하는 힘이었던 것이다.⁸⁾

이처럼 형태를 그리는 반복적인 행위는 본인의 욕구를 표출하기 위한 행위이고 이것은 일상이라는 매개체를 사용함으로써 무한히 넓은 영역을 단순반복으로 가장한다. 선을 하나하나 그리는 것이 단순히 형태를 따라 반복을 한다지만 실상으로는 그 선 하나하나가 본인의 욕망을 담고 있는 것이다. 이는 각각의 선들에 강한 힘을 담아 걸으면 무의미해 보이지만 이러한 반복으로 완성단계에서는 무거운 힘이 종이위에 실리게 된다.

3. 포스트모더니즘이란

포스트모더니즘이란? 1960년에 일어난 문화운동이면서 정치·경제·사회의 모든 영역과 관련되는 한 시대의 이념이다. 이 운동은 미국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학생운동·여성운동·흑인민권운동·제3세계운동 등의 사회운동과 전위 예술, 그리고 해체(Deconstruction) 혹은 후기구조주의 사상으로 시작되었으며 1970년대 중반 점검과 반성을 거쳐 오늘날에 이른다.

포스트모더니즘을 알기 위해서는 모더니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서구에서 근대 혹은 모던(modern) 시대라고 하면 18세기 계몽주의로부터 시작된 이성중심주의 시대를 일컫는다. 종교나 외적인 힘보다 인간의 이성에 대한 믿음

8) 윤대혁, 「인간관계론,」 (서울 : 삼영사, 2004), p.338

을 강조했던 계몽사상은 합리적 사고를 중시했으나 지나친 객관성의 주장으로 20세기에 들어서면서 도전받기 시작하였다. 니체, 하이데거의 실존주의를 거친 후 포스트모던 시대는 J.데리다, M.푸코, J.라캉, J.리오타르에 이르러 시작된다.

ism)에 대한 반발이 20세기 전반 모더니즘(Modernism)이었고 다시 이에 대한 반발이 포스트모더니즘이다. 사실주의는 대상을 그대로 옮길 수 있다는 재현(representation)에 대한 믿음으로 미술에서는 원근법을 중시하고 어떻게 하면 실물처럼 그럴까 고심했다.

모더니즘은 혁신이었으나 역설적으로 보수성을 지니고 있었다. 재현에 대한 회의로 개성 대신에 신화와 전통 등 보편성을 중시했고 피카소, 프루스트, 포크너, 조이스 등 거장을 낳았으나 난해하고 추상적인 기법으로 대중과 유리되었다. 개인의 음성을 되찾고 대중과 친근하면서 모더니즘의 거장을 거부하는 다양성의 실험이 포스트모더니즘이었다. 따라서 철학에서는 모던과 포스트모던 상황이 반발의 측면이 강하지만 예술에서는 연속의 측면도 함께 지닌다. 비록 이성과 보편성에 의지했지만 이미 재현에 대한 회의가 모더니즘(현대성)에서 일어났기 때문이다.

각 영역에서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미술에서는 추상 대신에 대중성을 띄고 다시 구상이 등장하였다. 그런데 팝아트처럼 같은 대상을 여러 번 찍어 '다르게 반복하기'를 선보이는 경우 모나리자 등 친숙하고 고유한 원본을 패러디하여 '다양한 재현들'을 선보이는 경우 예술가의 권한을 축소한 미니멀 아트(미니아튀르) 등 단 하나의 절대재현을 거부한다.

개성 · 자율성 · 다양성 · 대중성을 중시한 포스트모더니즘은 절대이념을 거부했기에 탈이념이라는 이 시대 정치이론을 낳는다. 또한 후기산업사회 문화논리로 비판받기도 한다. 산업사회는 분업과 대량생산으로 수요에 의해 공급이

이루어지던 시대이다. 이제 컴퓨터·서비스산업 등 정보화시대에 이르면 공급이 넘치고 수요는 광고와 패션에 의해 인위적으로 부추겨진다. 빛나간 소비사회는 때로 포스트모더니즘의 실험적이고 긍정적인 측면을 무력하게 만들기도 한다.

모더니즘이란? 1920년대 일어난 근대적인 감각을 나타내는 예술상의 여러 경향이다. 넓은 의미로는 교회의 권위 또는 봉건성에 반항 과학이나 합리성을 중시하고 널리 근대화를 지향하는 것을 말하지만 좁은 의미로는 기계문명과 도회적 감각을 중시하여 현대풍을 추구하는 것을 뜻한다.

예술상에서의 모더니즘은 20세기 초, 특히 1920년대에 일어난 표현주의·미래주의·다다이즘·형식주의(포멀리즘) 등의 감각적·추상적·초현실적인 경향의 여러 운동을 가리켜 말한다. 유럽과 미국에서는 이와 같은 여러 운동을 통틀어 모던 아트(modern art)라고 말하는 경향이 많으나 이것을 대국적인 견지에서 말한다면 19세기 예술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사실주의(리얼리즘)에 대한 반항운동이며 제1차 세계대전 후에 일어난 전위예술(前衛藝術: 아방가르드) 운동의 한 형태였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포스트모더니즘처럼 내 존재의 위치를 찾아가는 것이 예술이고 시대인데 대부분의 예술가들은 자신이 속해있는 사회 속에서 사고하기 때문에 자신이 경험하지 못한 다른 사회는 공감을 형성하지 못해 현 시대의 사고와 큰 거리가 있다.

포스트모더니즘이 예술이 지니는 특성들은 고급문화와 대중문화의 경계 허물기, 예술의 유연성, 서로 다양한 요소들이 무작위로 조합된 콜라주로 부조화의 조화, 혼성의 형태, 이중코드, 차이와 다양성에 대한 주목으로 나타난다. 미술의 경우 다른 화가의 여러 작품을 조합해 마치 하나의 독창적인 작품과 같이 만드는 기법을 뜻한다.⁹⁾

9) 이승훈, 「포스트모더니즘 시론」 (서울 : 도서출판 세계사, 1997), p. 43.

포스트하면 앞선, 지나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것은 모던한 것을 그냥 넘어가 버렸다는 것이다. 사실은 포스트모던은 모던의 반대개념으로 많이 인식되어있고 예술형식은 항상 과거의 것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부터 재창조하거나 장점을 살려 새로운 형식을 만드는 끊임없는 노력을 개진한 결과다. 라고 하는 것은 동양적 마인드이고 동양미술에서 포스트모던을 말하진 않는데 포스트모더니즘은 바로 서양 미술적 가치관의 산물이다. 계속적인 파괴와 해체 곧 기존의 예술적 개념과 가치를 거부하는 등의 과정을 통해 새로운 것이 나온다는 것이다. 그 결과가 현대 아니 정확히는 현재적 상황에서 항상 포스트 모던하다고 볼 수 있으며 모던이 현대라면 인간은 근대 사회를 벗어나서부터 현대인이었다. 그러므로, 현대는 지속되지만 과거의 현대는 아니라는 것이다. 동양미술에서도 현대적 작품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예술을 바라보는 시각이 서양과는 다르다.

물론 현대의 작품들을 보고 모던하다느니 포스트모던하다느니 하는 평가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명심해야 할 것은 현대와 반현대 혹은 비현대 혹은 초현대의 개념의 이론이 예술작품의 승고를 조작하거나 방법론을 혹은 양상을 규정하고 제시할 수는 없다는 사실이다. 이론을 위한 수단으로 규정해놓은 양식들에 관한 글들로 모든 것들을 단정 지을 수는 없다. 시간은 지금도 흐르고 있고 감성의 활동이 정지하지 않는 한 예술은 어떤 식으로든 가능해 질 수 있다는 것이다.

4. 작품과 대중과의 관계

앞에서 말한 포스트모더니즘처럼 여러 복잡한 이론은 수단일 뿐이지 우리생활의 모든 것을 설명해 줄 수는 없다. 아파트의 모습에서와 같이 걷은 정리되어 있고 큰 규모로 모든 사람들의 시야를 가려 마치 하늘과 땅 사이에 아파트뿐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우리가 이론으로만 설명 할 수만 없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 이런 아파트의 모습은 어떤 이론적 배경의 설명보다 현실에서 느끼고 사고한 것이 나의 개성으로 어떤 식으로든 표현하는 것이 현대미술인 것 같다.

주변에서 느낄 수 있는 본인을 충족시켜주는 여러 요소들과 그에 따르는 여러 느낌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하지만 느낌의 차이는 분명히 있고 이것은 매일 같은 주위를 보면서도 볼 때 마다 새로운 느낌을 찾을 수 있다. 그와 동시에 무의식적으로 작은 부분까지도 반복해서 봄으로 인해서 점점 친숙해진 부분까지 새로이 볼 수 있다.

이러한 작품의 주제는 나와 뗄 수 없는 것이며 생각의 표현임과 동시에, 이 논문에서의 가장 주된 관심사이기 때문이다. 이 복잡한 관계를 정리 할 수는 없지만 그 속에 속해 있는 위치를 찾아보고 작품으로 나타냄으로 인해서 새로운 주변인식을 통해 일상에서의 존재가치를 찾아보는 것이다.

본래 주거가 갖고 있는 환경은 건강성, 안정성, 편리성 등 기본적인 물리적 환경요소 외에 자연환경과 사회적 환경이 주는 쾌감이 생활의 질과 밀접한 관계를 가질 수 있는 매개체 역할을 해야 한다. 아파트는 편리성에 가장 중점을 둔 주거환경이다.¹⁰⁾ 이런 아파트의 모습은 현대사회의 모습을 잘 반영하고 있고, 주위에 항상 존재하고 있는 것 들 중 하나이다.

10) 김구필, “주상복합 아파트 거주자의 주거만족도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대학원:석사논문, 2002), p.40.

우리들이 경험하는 모든 인간관계를 크게 둘로 나누어 본다면, 그것은 '만남과 스침'의 관계로 구분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포웰(J. Powell)에 의하면 실존주의 심리학에서 사용하는 만남(encounter)이란, 두 사람 사이의 '특별한 관계'11)를 뜻하는 것이다. 이렇게 만남이란 것을 통해서 마주치는 것들에게 특별한 함을 느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고 있는 스침의 관계는 다른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을 듣고 보는 경우라 할지라도 이에 대하여 별다른 감정이나 동정을 느끼지 못한 채 건성으로 대하게 된다.12)

이렇게 포스트모더니즘에서부터 여러 이론들을 제시한 이유는 현대미술은 정의하기에는 너무나 복잡한 요소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작가의 작품의 의도에서 대중에게의 비판까지에는 여러 요소들이 작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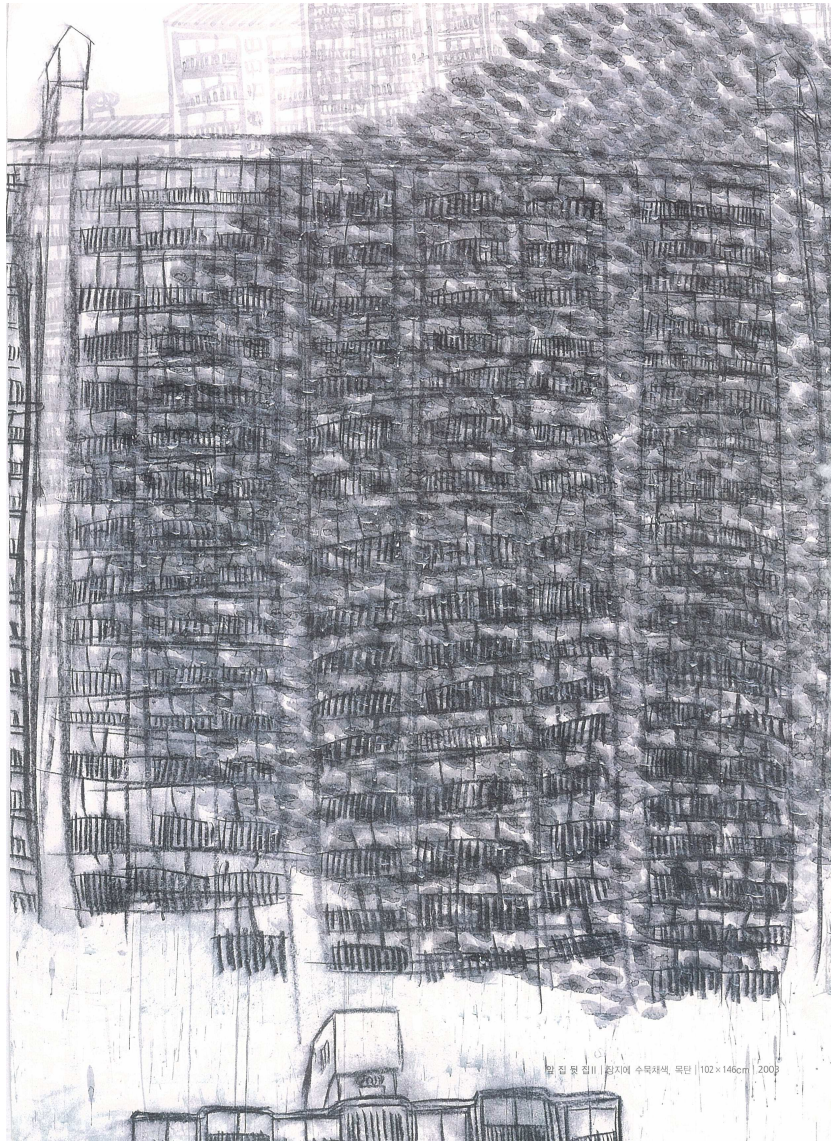
현재까지 존재해 온 작품들에 다가가는 방법에 있어서는 작가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보거나 평론가의 평으로 인해 한번 정제된 후 자신의 감정이 무엇인지를 생각한다. 사람들은 서로의 영향으로 인해 본인의 생각보다는 주위의 영향과 시선으로 인해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작가나 감상자는 서로가 서로의 영향을 받아 감정 표현에 많은 제약을 가져온다.

작업에 있어서 벗어나려고 노력하여 왔지만 언제나 따라오는 것이 주위의 시선인 것 같다. 본인 뿐 아니라 모든 작가들이 느끼는 점이라 생각되고 이런 시선들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뒤로 물러날 수 있는 연습을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11) J. Powell, 「The secret of Staying in Love, Niles I11」, (Argus Communications, 1984), p.41.

12) 윤대혁, 「인간관계론」, (서울 : 삼영사, 2004), p.42.

Ⅲ. 작품(아파트)의 분석



【작 품 1】 앞집뒷집 II, 102×146cm, 장지에 수묵채색, 목탄, 2003

【작 품 1】 앞 집 뒷 집 II

크기 : 102×146cm

재료 : 장지에 수묵채색, 목탄

제작년도 : 2003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주위를 한번 둘러보면 재미있는 현상을 발견하게 된다. 이 집들은 길에서 보면 모두 똑같은 모양을 하고 있으나 집에 들어가면 그 생활양식과 모습들이 모두 다르다. 길으로 보기에선 같은 외형을 하고 있지만 내 것에 대한 나만이 구별 방법이 있는 것이다. 사람들은 신기하게도 이렇게 같은 모양을 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 자기의 집을 찾아 간다. 이런 생각을 기초로 똑같이 생긴 아파트끼리의 관계를 표현해 보고자 앞에 있는 아파트, 뒤에, 그 뒤에 아파트를 관찰해 봄으로 인해 나만이 가지고 있는 우리 집 찾는 방법을 표현해 본다.

재료는 목탄, 먹, 호분 세 가지를 이용했으며, 그 중에서도 목탄의 사용을 많이 하였다. 목탄은 아파트의 이미지를 가장 단순하게 표현 할 수 있는 재료이고, 그에 반해 표현 효과는 기대이상이다. 단순한 재료를 통해 단순한 아파트를 표현함으로써 인해서 차갑고 냉랭한 느낌을 나타내었다.

우리집, 앞집, 뒷집과의 공간 거리를 강조하기 위하여 구도에 많은 변화를 주었으며, 특히 앞집(아파트)의 윗부분을 강조함으로써 시선을 앞집의 지붕에서 우리집의 전체로 옮겨가는 과정을 통해 그 사이의 거리를 실제의 거리와 비슷한 공간으로 느껴지게 한 작품이다.



【작 품 2】 산책 - Take the air II, 90 X 116cm, 장지에 수묵채색, 2003

【작 품 2】 산책 - Take the air II

크기 : 90 X 116cm

재료 : 장지에 수묵채색

제작년도 : 2003

겉으로 보기에 모두 같지만 실상 안을 들여다보면 모두 다른 모습을 하고 있다. 그 속으로 들어가면 각기 다른 주거환경을 가지고 있다. 그 곳은 사적인 공간이고, 사람이 살아가는데 기본적인 필수 요건을 해결하는 곳이다며 안락함을 느끼는 그런 곳이기도하다. 복잡한 사회 속에서 칸막이를 쳐 놓고 나만의 휴식공간을 형성해 놓은 그 곳에서는 어떤 행동이라도 가능하며, 사회의 피로로부터 피난처가 된다. 이런 공간을 차가운 시멘트로 덮고, 숨 구멍을 들은 다음에, 나무들로 가려 놓았고 개인의 추한 모습을 보이기 싫어서 창문도 꼭 닫고, 나무로 한 겹 더 가림으로 인해서 사회 속에서 사적인 모습을 철저히 가리려고 노력하고 있다.

표현방법에 있어서는 아파트 위에 나무를 그려서 아파트를 가리고 좀 더 효과적으로 아파트를 가리기 위해 색채를 넣음으로 인해 시선이 아파트에서 한층 더 멀어지는 효과를 낸다. 아파트의 한 부분만 화면에 나타냄으로 인해 반대편 아파트의 창문에서 앞에 있는 아파트를 바라보는 시선의 위치를 선택함으로 인해 반대편의 아파트와 연결을 단절시키고, 땅과 하늘이 보이지 않음으로 그 사이의 단절된 느낌을 가중하고, 나무를 통한 효과에 있어서는 검은 색으로 무겁게 표현하여 뒤의 아파트의 존재감을 가볍게 만들어 주는 것이다.

이는 우리 중심의 사회를 나타내며, 어디와도 소통은 원하지 않는 곳을 나타낸 것이다.



【작 품 3】 산책 - Take the air I, 160×130cm, 장지에 수묵채색, 목탄,
2003

【작 품 3】 산책 - Take the air I

크기 : 160×130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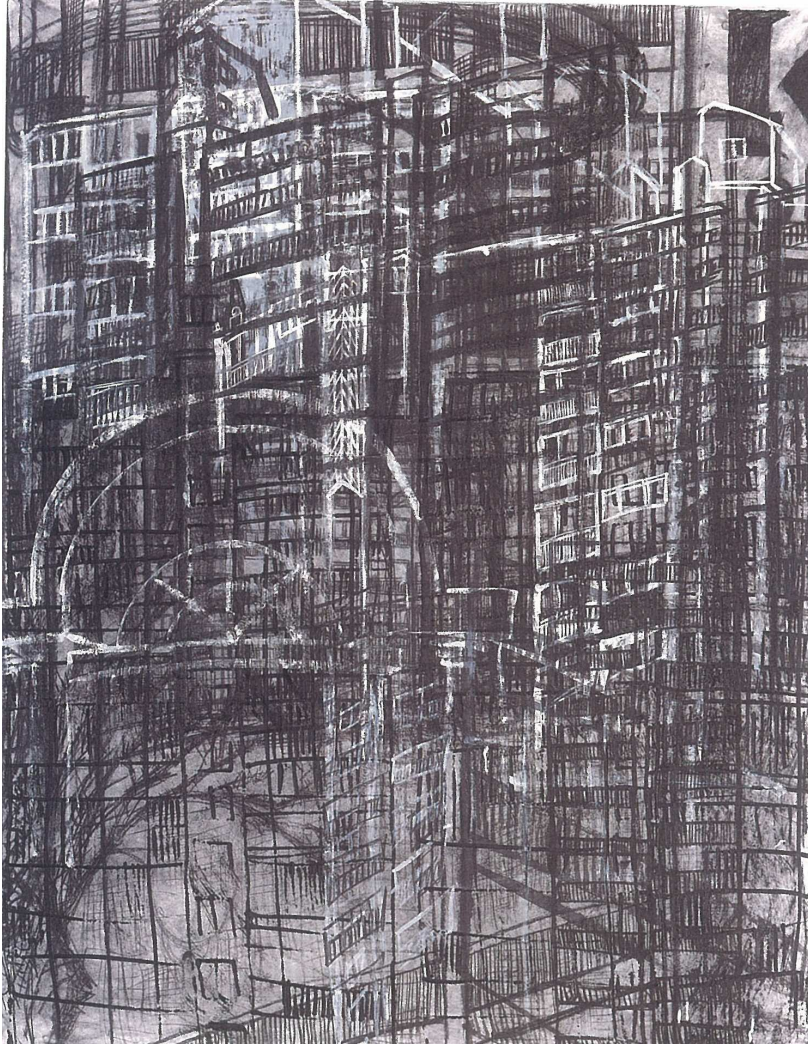
재료 : 장지에 수묵채색, 목탄

제작년도 : 2003

아파트를 관찰하면서 아파트 주위에 아파트만큼 많은 나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 나무들은 사람들이 삭막함을 약간이나마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만들어 놓은 장치이다. 상자 같은 아파트들과 깔끔하게 정리되어 자유롭게 푸르름을 자랑하는 나무들은 서로 나름의 조화를 이루고 있고, 이들은 서로 공존하는 방법에 있어서 나름의 법칙이 있으며 그리고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고 있다. 이런 모습을 가지고 내가 느끼고 있는 안락함과 잊고 있었던 것을 찾아내어 표현하고자 하였으며 작품을 표현하는 과정에서는 이렇게 느낀 대상을 스스로가 솔직한 모습으로 다가가 표현하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태풍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을 듯해 보이던 아파트를 바람에 의해 휘어짐으로 나무와 하나가 되어 자연의 일부분으로 여러 자연현상에 영향을 받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나무의 푸른색을 선택해 아파트를 감싸고 있는 바람을 표현함으로써 인해 한층 바람, 아파트, 나무가 하나가 됨을 보여준다.

바람이 부는 날 아파트는 주변의 나무들과 함께 산들 바람에 몸을 맡긴 채 시간의 흐름을 즐기고 있다.



【작 품 4】 산채-Take a turn, 140×180cm, 장지에 수묵채색, 목탄, 아크릴,
2003

【작 품 4】 산책-Take a turn

크기 : 140×180cm

재료 : 장지에 수묵채색, 목탄, 아크릴

제작년도 : 2003

집에 가는 길에는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아파트로 둘러 싸여 있다. 아파트들은 시야에서 하늘과 땅 밖에 허용하지 않는다. 저 너머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그런 아파트를 옆으로 돌아서 가보면 또 다른 아파트가 존재하고 있어 그 뒤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가 없다. 하늘과 땅을 빼고 아파트만 남겨 이런 칙칙이 쌓인 아파트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인 기본 틀과 틀을 채우고 있는 시멘트 중 틀만 남기고 시멘트를 제거함으로써 인해서 노력을 통해 뒤에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려는 작업이다. 이러한 행위의 반복을 통해 아파트를 표현해 봄으로서 인해서 새로운 화면 구성으로 아파트를 표현해본다. 좀 더 답답하고 무거운 아파트의 느낌을 표현하기 위해 아크릴이라는 재료로 뒤의 아파트를 가려가며 새로운 아파트를 그려 표현해 보았다.

이렇게 여러 번 겹쳐지는 작업에서는 겹쳐지면 질수록 그 무게가 가중되어야 한다. 목탄이나 먹만으로는 이런 무게감의 한계가 있어 아크릴 물감을 통해 종이에 많은 부담을 주어, 답답하고, 딱딱한 아파트들의 모습을 나타내었다.



【작 품 5】 산책 - Take an outing, 130×160cm, 장지에 수묵채색, 목탄,
2003

【작 품 5】 산책 - Take an outing

크기 : 130×160cm

재료 : 장지에 수묵채색, 목탄

제작년도 : 2003

작업 중 많은 거슬러 올라가기가 반복이 된다. 생각의 생각을 거듭하다보면 어느순간 내가 무엇을 생각하는지를 잊고 무의식 적인 상태에서 반사적으로 그림을 그린다. 이 과정에서는 눈과 손만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점점 시각적 효과에만 치중을 한다. 본 의도를 무엇인지 잊고 효과만을 따라가는 경향이 많이 나타나게 된다. 또, 모든 작품을 복잡한 사고 속에서 창조해 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이것이 자신의 작업과정의 모든 것이므로, 시각적 표현에만 주력해서 그린 그림도 자신의 모습을 담았다고 할 수 있다. 생각을 행동의 증거로 남겨 표현하는 것이므로, 생각과 시각적 효과가 적절히 만나야 보다 나은 작품이 된다. 이 둘은 떼려고 해도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으므로 시각적인 효과를 무시 할 수는 없는 것이며 이러한 과정의 반복을 통해서 두 가지가 잘 어울려 느낌들을 표현해 내는 것이다.

이 작품은 무심코 그린 작품이다. 제작의 시작에서부터 아파트라는 소재를 가지고 시각적 효과만을 고려해 가며 표현했다. 무거운 밤을 이고 있는 아파트에 작은 조명을 켜 놓은 것이다. 아래에 조명을 설치함으로 인해 아파트의 거대함과, 전체의 모습을 보이지 않음으로 인해 자신의 내면의 모습을 다 드러내지 않는 현대인의 모습을 나타내었다.



【작 품 6】 산책 - stroll, 600x210, 장지에 수묵채색, 목탄, 2003.

【작 품 6】 산책 - stroll

크기 : 600×210

재료 : 장지에 수묵채색, 목탄

제작년도 : 2003

작업을 시작할 때 가장 고민을 하는 것이 소재의 선택이다. 어떤 소재로 그려야 할까?

세상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어서, 그리고 싶은 것들이 너무나 많다. 그 중에서 한가지를 선택한다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링이다.

소재란 무엇인가?

그림을 그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사람들은 본연의 모습을 찾거나, 자연, 찌들은 세상, 어지러운 사람들의 속마음 등을 찾으려고 여러 소재의 표현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상대방을 설득시킨다. 그들은 자기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찾았을까? 아니, 그 무엇을 찾기 위해서 사람들은 그림을 그린다. 나 또한 그렇다. 그런데 그림에서는 무엇을 설명을 하려고 하는지 그 내용은 도대체 어디에서 출발을 했는지 소재란 것은 거기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많은 고민을 한다. 표현방법도 마찬가지로이다. 결국 아무것도 모른채 아무것도 아닌것을 제시만 할 뿐이다.

나와 모두에게 그것이 무엇인지를 이 산책로를 따라 걸어가며 생각해 보라는 의미로 길이를 길게 하여 아파트에 속해있는 산책로를 표현해 보았다.



【작 품 7】 서서 - Be the head, 160×110cm, 장지에 수묵채색, 목탄, 2003

【작 품 7】 서서 - Be the head

크기 : 160×110cm

재료 : 장지에 수묵채색, 목탄

제작년도 : 2003

아파트는 곁에서 보면 커다란 네모 콘크리트에 불과하다. 모두 똑같이 칸을 나눠 창문을 만들어 내집 남의 집의 모습을 모두 같게 만들어 놓아 구분을 할 수 없게 만들어 놓았는데, 그 안에 들어가면 각자 다른 생활공간을 형성하고 있는 포근한 나만의 공간이 있다. 전체를 보면 차갑기만 한 형상에서 그 속은 아늑한 우리집의 공간을 포함하고 있다. 이런 재미있는 현상으로 우리 사회의 모순을 비춰 볼 수 있다. 차갑다고 하지만 그 안에 인간미는 언제나 존재하고 있다. 이곳은 매일을 보내는 곳이고,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를 형성하는 곳이다. 이런 아파트의 차갑고 딱딱하고, 획일적으로 나누어진 공간을 한강에 비추어 그 경계들을 없애는 과정을 통해서 부드럽고 아늑한 느낌을 강조해 아파트를 재해석 해본다.

IV. 결 론

작업을 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동기와 원인이 있다. 이 동기와 원인이 작가의 주관적인 생각의 여과 장치를 통해서 새로운 작품으로 나타나게 된다. 작품을 보는 순간에는 그것을 시작으로 하여 아파트라라는 작품에 각자의 생각을 더해 한 작품을 보면서도 각각 다른 감상을 할 수 있게 하여 감상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고, 각자의 느낌으로 해석을 하고 자기 작품의 제작에서 감상자의 영역은 침범하지 않고 작업에만 충실함으로 주위에 많은 시선에서 벗어나 표현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방법을 모색한 것이다.

이 과정은 많은 실험에서 시작되었다. 현대미술의 모호함 만큼 아파트라라는 작품에 이르기까지 많은 방향이 있어 왔고, 그 방향에서 나를 잡아준 것이 아파트였다. 그림을 그릴수록 아파트라라는 작품의 수가 점 점 쌓여 이런 반복을 통해 저절로 아파트에 정착하게 되었고, 그런 와중에서도 주위의 시선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음을 느꼈고 주변이라는 사소한 것으로만 생각했던 소재를 삼았으나 막상 작업을 해갈 수록 어려움은 더해만 갔다. 쉽게만 생각했던 것들도 깊게 접할수록 그 모습 안에는 많은 것들을 내포하고 있어 작업이란 것과 만나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세월이 흐르고,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예술작품의 수는 늘어만 가고, 사람들의 지적 수준은 올라만 간다. 그로인해 현 시대에는 너무나 많은 작품 감상의 잣대가 있다. 이런 제약 때문에 대중이나 작가들의 생각의 영역을 제약하고, 침략하고, 결국은 지배하려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작품은 말 그대로 작가의 생각의 표현이며 한 개인의 생각은 무궁무진 할 수 있고, 내 생각과 다를 수 있는데 거기에서 몇몇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을 합리화 하려하

고 자신의 생각에 많은 동요를 위해 여러 잣대를 만들어 사람들에게 납득시키려 한다. 이처럼 이 사회는 어떤 형식을 만들어 거기에 결부 시켜 옳고 그름을 가리려는 경향이 많다. 작가가 그림을 그리는 데에는 이유가 있고, 동기, 원인, 각자 의도한 결과 등 여러 가지 복잡하고 다양한 요소들이 섞여 한 작품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이렇게 복잡한 것을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지는 작가의 생각, 의도만 해당 된다고 생각한다. 다른 요소들을 작가의 표현영역에 '작품이란?' 이란 명목으로 여러 가지 제약들만 가져올 뿐이다. 자신을 포함한 여러 작가들은 이미 여러 매체를 통해서 이런 잣대들에 익숙해져 있다. 이는 누군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 스스로에서 오는 것이다. 이런 제약들을 벗어나야 할 가장 큰 과정으로 여겨 아파트라는 소재의 작업을 통해 주위의 영향에서 벗어난 내 모습을 찾으려고 노력한다. 이는 작품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작품과 직결되어있는 삶의 방향을 잡아가는 것에서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자신의 모습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작품에 임했으며, 그 결과 자신은 주위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음을 느껴 최대한 작품의 소재선정이나 제작 과정 등 전반적인 작품에 관련된 것들에서 자신의 생각에 가장 큰 중심을 두었다. 그리고 그것을 접하는 사람들은 각자의 생각의 중심에서 작품에 관련하여 생각하는 아파트를 바라보는 느낌은 각자에게 맡기고 작품에만 집중함으로써 인해서 현실사회에서의 작품의 방향과 목적을 찾아갈 수 있게 이에 대한 연구를 계속 진행해 나갈 것이다.

참고문헌

<단행본>

- 프리즈 파펜하임. {현대인과 소외}. 진덕규 역. 서울 : 학문과 사상사, 1983.
- 최종욱. {일상에서의 철학}. 서울 : 지와 사랑, 2000.
- 박재환 · 일상성일상생활연구회. {일상생활의 사회학}. 서울 : 한울, 1994.
- 메를로 폰티. {현상학과 예술}. 오병남역. 서울 : 서광사, 1983.
- J. 헤센. {인식론}. 이광조 옮김. 서울 : 서광사, 1994.
- J. Powell. {The secret of Staying in Love, Niles I11}. Argus Communications, 1984.
- 윤대혁. {인간관계론}. 서울 : 삼영사, 2004.
- 이승훈. {포스트모더니즘 시론}. 서울 : 도서출판 세계사, 1997.
- 최종욱. {일상에서의 철학}. 지와 사랑, 2000.
- 가스통 바슐라르. {순간의 미학}, 이가람 역. 서울 : 영언, 2002.

<학위논문>

- 김구필. “주상복합 아파트 거주자의 주거만족도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대학원:석사논문, 2002.
- 정유진. “일상 풍경의 감상적 표현연구 : 나무·그림자 이미지를 중심으로”. 홍대미술대학원:석사논문, 2004.

ABSTRACT

Study of surroundings in life -in the focus of personal art works -

Kim, dong hee
Dept. of Oriental Painting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ere are various motivations and reasons for works. These motivations and reasons make a new work of art with a filter of artists subjective mind. It is important that we appreciate the works of apartments with our own views to feel various impressions in one work, and it is also important that an artist should concentrate only on his work to ignore views of others and find what he really wants to express.

This process resulted from many experiments. As ambiguous as the recent arts are, my interpretation has been ambiguous until I reach the works of apartments. The more I drew apartments, the stronger my intention attached to apartments, and while I was repeating that, I found I could not avoid the views of others. Although the subject matter of surroundings was regarded as trifling ones, the difficulty grew bigger during my work. Even insignificant things can show profound meanings in themselves if looked deeply, and have multiple features when they are fused with the situation of art works.

According to the change of time and society, the number of art works keeps increasing and the intelligence of people also grows up. It has caused too many criteria of appreciation, and may have restricted or dominated the region of thoughts of artists and populace. An art work means literally an expression of artists thoughts, and therefore, individual thoughts can be infinite and different from others, but some people insist on their own views only and make more criteria only for self-rationalization trying to extort obedience.

Thus, the society tends to make extra criteria and judge with such criteria. However, there are certain reasons for artists to make works, and other various motivations and intentions merge into reasons to make one art work. This complex thing can be judged only by the artists own thought and intention. If other criteria are added to it from surroundings, that could be only restrictions for an art work. Many artists including myself are already used to such criteria through several media, and that does not result from others, but themselves. I think such restrictions are the most critical thing to avoid and try to find myself overcoming the circumstances with works about the subject of apartments. This attempt is not limited to works, but also applicable to my whole life connecting with my works.

I have faced on the works looking for my own image, but have found that I can not free myself perfectly from the surroundings. Consequently, in selection of subject, making process, and other comprehensive matters, I attach the greatest importance to my own view and leave others views as

they are. With this view, I can study of finding the direction and purpose of art works in the reality.